

한국타이어제조 (주)

대전공장 홍성권 사우,
최창덕 주임 '품질명장'수상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가 지난해 11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근로자와 기업체 대표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우리 회사 대전공장의 홍성권 사우(설비보전1과)와 최창덕 주임(정련과)은 대통령상인 '품질명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번 두 사우의 '품질명장'수상으로 한국타이어의 기업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영예와 회사의 영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값진 것이었다.

대전공장 김경웅 사우,
대통령상 수상

대전공장 김경웅 사우(성형1과)가 지난해 11월 30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제3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김경웅 사우는 1984년 2월에 입사한 후 10년동안 묵묵

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는 등 동료사원들의 모범이 되어왔다.

그는 그동안 U/F 불량발생 원인분석 및 요인제거의 OE 규격에 맞는 세팅 조건표, OE 관리 이력현황을 활용하여 U/F OE합격을 향상에 기여하고, U/F합격을 향상에 좋은 실적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불량률의 혁신적인 감소로 품질향상에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U/F불량과 각종 외관불량의 발생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한 교안을 작성하여 휴게실에 비치하고 교육자료 및 기계 트러블 슈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94년도 해외지점장 회의 개최

'94년도 해외지점장 회의가 해외진출의 첫 주자 한암(HANAM)법인 주관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시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회의는 홍건희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 한암법인 부사장, 오사카, 캐나다, 영국 법인장 및 10여개 지점장, 본사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회의안건은 '94년도 해외부문 성과보고, 해외부문 중장기 경영계획 및 '95년도 방침설명, 주요 테마별 주제 발표와 집중협의, 지점별 향후 중점 추진사항보고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홍건희 사장은 '냉철한 비즈니스, 따뜻한 인간관계'란 말로 회사의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며 탄탄한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사원의 복지는 물론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기업으로 성장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의 최우수 지점으로는 멕시코 지점이 선정되었다.

소매점장 공장 견학 시행

마케팅부는 소매점장 대상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6일, 7일, 13일 등 3차에 걸쳐 277명의 전국 소매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제원공장, 대전공장, 중앙연구소 등의 견학을 통한 우리사 주요 제품의 생산과정과 연구·개발 과정 이해, 우리사와 유통점간의 한마음 의식 고취를 위한 '한국타이어 한가족의 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우성타이어(주)

'95년 시무식 거행

우성타이어(주)는 지난 1월 3일 양산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5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를 맞는 힘찬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동철 사장은 식사를 통하여 “지난해에는 설비투자 증설, 부산공장의 양산 이전, ISO 9001 인증획득, 해외지사 설치 등 대내외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를 맞이하여 설정한 '95년도의 경영방침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성과 창의력을 자산으로 하여 언제나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지혜로운 기업으로 키워나갑시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또 “'95년은 새로운 세기를 향한 생존경쟁의 시발이 되는 해”라고 전제하고 “이제 우리 모두 부단한 자기계발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기업을 향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동철 사장은 △인원 확보, △바이어스(BI-AS) 타이어 생산 조기정착, △기술개발체계 구축, △판매 및 물류의 효율적 관리·운영, △수출목표 달성, △원가절감, △E-MAIL 체계적 운영과 ISO 시스템 정착 등을 주요 실천사항으로 당부했다.

승진 및 전보자에 대한 인사이동 단행

'95년도 승진자 및 전보자에 대한 인사이동이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되었다. 특히 이번 승진자중에는 3명의 부장이 새로 임원에 임명되는 경사를 맞이하였는데, 그 면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 1팀의 송덕진 부장이 수출담당 이사대우로, 특판팀의 정달석 부장이 OE영업담당 이사대우로, 경리팀의 이상욱 부장이 관리담당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되었다.

또한 수출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출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서 책임자로는 조명래 아주과 차장이 전보 발령되었다.

ISO 9001 인증획득 기념 고객사은품 증정

우성타이어(주)는 ISO 9001 인증획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사은품을 마련하여 내수고객 및 해외 거래선들에게 증정하고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특히 해외 거래선들에게는 ISO 인증 CERTIFICATE 기념패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외국어 교육 확대 실시

우성타이어(주)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외국어 교육과목을 영어에 한정하였던 것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95년도부터는 중국어를 추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외국어 교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1주일에 3번씩 각 100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 서울사무소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금 호

초인류기업을 향한 도약원년,
'95년도 시무식 거행

21세기 초일류 금호의 비전을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할 '95년도의 시무식이 지난 1월 3일 광주공장을 비롯 서울 사옥, 곡성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거행되었다.

시무식 신년사에서 남 일 사장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저력 있는 애사심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94년 대비 27%가 증가된 매출목표 달성과 흑자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기필코 실현하여 2000년대 금호비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 하자고 강조하며, 우리의 생존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95년도 경영방침을 제시하였다.

- 1. 초일류사원의 자질 향상
- 2. 노경화합의 환경 조성
- 3. 고수익 지향의 경영체제 확립

시무식이 끝난 후 임직원들은 '도덕성과 인간미를 갖춘 자기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

적 감각을 겸비한 철저한 현장책임주의자' 초일류사원으로서의 첫날 업무에 임했다.

VICTORACER V 700
용인 자동차 RACING 석권

지난해 11월 27일 용인 모터파크에서 열린 제4차 합동훈련 경기에서 주식회사 금호의 VICTORACER V700을 장착한 차량이 전 CLASS에서 1위를 석권하며, 금호타이어의 CAR RACING TIRE의 우수한 품질과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했다.

해외법인장 회의 개최

해외 판매시장에서 금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법인장 및 지사장 전원이 '95년 사업계획 달성방안 협의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로 잠시 귀국했다.

해외법인장 및 지사장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옥에서 팍짜인 일정을 마친후 '95년도 흑자경영의 희망을 안고 18일께 다시 각국의 판매현장으로 돌아갔다.

제1회 전남 으뜸장인상 수상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제1회 전라남도 으뜸장인상을 곡성공장 설비1과에 근무하는 임병기 사우가 수상하였다.

임병기 사우는 '90년 사내 분임조 금상, '91년 사내 제안왕, '92년 전국 제안왕 등을 수상한 바 있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이다.

금호 주부교양교실 제1기 수료식 마쳐

사원가족과 회사와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원가족을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금호 주부교양교실의 취미교실반이 12월 30일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0일 주부교실을 개설한 이후 3개월간의 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가슴으로의 대화와 웃음으로의 만남이 이어져, 금호 한마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굳은 발판이 되었다.